

눈부신 힘

성석제 소설가



2010년 6월, 나는 독일 베를린의 햇빛 속에서 부유하는 먼지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베를린에는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체류할 예정이었다. 베를린에 도착한 이후 한동안은

시차에 적응해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적응시키기 위해 일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전시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하려던 차에 그 전시회를 다녀온 70대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다시 가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때문에 영원히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전시회에는 20여 점의 작품이 걸려 있는데 한 작품당 2분의 감상 시간을 관람객에게 허용하고 있고 한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의 뒤를 지나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규칙이라고 했다. 그는 오전 7시에 예매한 표를 챙겨서 집을 나섰으나 점심을 샌드위치로 때우면서 줄을 서 있다가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입장이 허용되었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때가 다 되어서였다. 질려버린 나는 전시회를 가는 대신 인터넷으로 그림을 대충 훑어보고 프리다 칼로의 드라마틱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시간을 ‘절약’했다. 어쨌든 프리다 칼로 덕분에 베를린에 또 다른 흥미로운 전시가 없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근처에 있는 게멜데 갤러리로 가보기로 했다.

‘13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유럽 회화예술의 정화가 모여 있다’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명과는 달리 미술관 입구에서 약 1킬로미터, 그러니까 거의 미술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가는 동안 내 눈을 잡아끄는 그림은 없었다. 주로 독일 출신의 화가들이 그린 귀족과 가족의 초상, 어디를 그렸는지 알 수 없는 비슷비슷한 풍경화, 성인과 순교자며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림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지루할 정도로 많이 전시돼 있었다. 반환점을 도는 기분으로 말굽자석처럼 되어 있는 미술관 가운데의 벽면을 돌아서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을 뒤흔드는 그림을 만났다.

그건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판 레인(1606~1669)이 그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병상의 야곱’이

었다. 죽음이 임박한 백발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정경이 갑자기 내 눈물샘을 치기라도 한 듯 자극하는 바람에 눈물을 쏟고 말았다. 기둥에 휘청거리는 몸까지 의지한 채, 그들의 일가족이나 되는 듯이. 2분이 아니라 5분은 충분히 지났으나 그 그림 앞을 떠날 수 없었다. 내 뒤를 따라오던 단체 관람객들이 그림보다 눈물을 흘리는 나를 더 흥미롭게 관람하면서 지나갔다. 나는 대책 없이 ‘관광’을 당하고 있다가 어디선가 한국말이 들려오는 바람에 겨우 걸음을 뗄 수 있었다. 미술관을 나와 해가 중천에서 내리쬐는 야외 매점에서 생맥주를 한 잔 주문해 마시면서 생각해보았다.

차가운 생맥주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 나는 내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가족과 떨어진 채 혼자라 외로워서, 향수 때문에, 어린 시절 성당에서 렘브란트와 루벤스 같은 거장들이 그린 성화를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던 게 환기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결론짓고 일과성 사고라고 규정한 뒤 일단은 봉인해 두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십일 뒤 뮌헨의 노이에피나코테크 미술관에서 그 봉인은 사정없이 뜯겨 나갔다. 봉인을 뜯어낸 그림은 렘브란트와 같은 나라 출신인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것으로 유명한 그림 ‘해바라기’의 옆에 있던 평범해 보이는 풍경화 ‘오베르부근 풍경 : 밀밭’이었다. 고흐가 죽기 직전인 1890년 여름에 오베르-쉬르-우와즈에서 완성된 작품이었다.

인적이 없는 빈 들판에 초목과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고 하늘에는 구름이 떠있었다. 거기에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누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엄청난 전압을 가진 고독의 전류로 흘러 그림 속 공간을 팽팽히 대전(帶電)시키는가 싶더니 다시 내 눈에서 눈물이 솟구쳐 흘렀다. 이미 한번 겪은 일이어서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눈물을 공짜 관람할 수 없도록 그림 앞으로 다가가 정면으로 마주보고 섰다. 눈물은 조용히 뺨으로 흘러내렸다.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나는 고독했고 그 고독의 독성을 씻어 내리기 위해 눈물이 필요했노라고. 또한 봉침과 같은 고독이 번잡함과 세속에 찌들어 있던 나를 치유했을 것이라고.

눈물은 은혜로운 것이었다. 스스로를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며, 정화된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게 하는 신의 선물 같은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내 눈물이 그 나이가 되면 으레 찾아오는 호르몬 실조 때문이라고 했고 이역에서 마음이 약해져 사소한 일에도 눈물바람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그 눈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뜻 깊은 ‘분비물’로 기억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성적제: 1960년 경북 상주 출생. 연세대 법학과 졸업. 1986년 〈문학사상〉시 부문 신인상으로 작품활동 시작, 1994년 소설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간행하며 소설 쓰기 시작. 소설집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재미나는 인생〉 〈변칙하는 황홀한 순간〉 〈홀립〉, 장편소설 〈아름다운 날들〉 〈도망자 이치도〉 〈단 한번의 연애〉 〈투명인간〉, 산문집 〈즐겁게 춤을 추다가〉 〈소풍〉 등 출간. 한국일보문학상, 동서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요산문학상 수상.

※본문의 파란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